



김제농협 파크골프동호회, 정읍농협과 친선경기 개최

김제농협은 지난 11일 김제 청하파크골프장에서 김제농협 파크골프동호회와 정읍농협 파크골프동호회 간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경기는 지난해 정읍농협 주최로 진행된 데 이어 올해는 김제농협 주최로 마련됐으며, 양 농협 동호회원 등 약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파크골프 경기를 통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농협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양 농협은 지역 농산물을 함께 나누며 상호 교류의 의미를 더했으며, 경기 후에는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제농협 파크골프동호회는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호원대 학생자치기구, '사랑의 헌혈 캠페인' 펼쳐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12일 교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 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 당일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은 교내 홍보와 현장 안내를 진행하는 동시에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특히 학생들이 기혈, 홍보, 참여 전 과정을 주도하며 봉사 활동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팀 모집

남원소방서는 지역 어린이들의 초기 재난 대응 능력을 기르고 일상 속 안전 습관을 튼튼하게 형성하기 위해 '제26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함께 할 초등학생 참가 학급을 오는 6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이며, 학급당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전원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완료한 학급에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가 제공되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후, 9월 8일 치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선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신신협, 조합원 건강 증진 위해 몽치다

전주병원 · 호성전주병원과 의료 · 복지 연계 강화 협약... 조합원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서신신협은 지난 11일 전주병원 · 호성전주병원과 조합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신신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담 인력(서비스 매니저)을 통한 1대1 동행 서비스도 운영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되며,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훈 서신신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신신협은 자산 1,705억 원, 조합원 9,443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신협 종합경영평가 수상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신신협은 자산 1,705억 원, 조합원 9,443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신협 종합경영평가 수상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팔순 어르신 힐링여행 진행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12일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팔순을 기념하는 '어르신 팔순 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외부 나들이 형태로 준비했으며 팔순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비롯해 김 진 회장, 협의회 임원 및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행은 곡성 기차마을에서 증기 기관차를 탑승하며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일정과 장미공원 산책을 진행했다. 또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 경량 재킷과 기념품을 준비해 전달하고 여행 기념 액자로 기쁨을 더했다.

한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팔순 여행 지원 외에도 주민도움센터,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등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6회 산서면민의 날 성료... 700여 명 면민 · 출향인 한자리에

장수군 산서면은 '제46회 산서면민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이 지난 9일 산서초등학교 일원에서 700여 명의 면민과 출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 성대하게 마무리 됐다.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서면과 산서면 체육회(회장 옥맹수)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 등 주요 내빈과 재경 · 재전향우회, 총동문회 등 전국 각지의 출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사회 결속을 다졌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한 하상환 재경장수군민회장에게 최고 영예인 산서면민의 장 '애향장'이 수여됐다.

또한 산서면체육회는 정관현 씨에게, 산서면이장협의회는 김용완 산서면사무소 주무관과 하대호 장수농협 산서지점 직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부상 20만 원을 전달하며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기념식 후 이어진 '화합 한마당'에서는 주민동호회 공연, 면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옥맹수 회장은 "오늘의 뜨거운 열기와 화합된 에너지가 우리 산서면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면장은 "면민의 날 행사가 지역 공동체의 소중함과 고향의 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산서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한끼국수' 나눔 행사

장수군은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 자활기업 '한끼국수'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국수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정서적 교류와 안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기업 출범 1년 차를 맞은 '한끼국수'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편 한끼국수 자활기업은 지난해 12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출범했으며,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시설 · 피난방화시설 신고포상제 확대

순창소방서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종이던 신고대상물을 15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신고 대상은개정 이후에는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확대됐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목격할 후 48시간 이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순창소방서 방문 접수와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정 이후에는 현금 또는 은누리상품권 ·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지급 상한도 월간 30만 원 ·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 010-9645-4113 | 중양지사 010-9088-6874 | 남원지사 632-3996 | 임실지사 010-9642-2725 |
| 심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655 | 김제지사 545-1227 | 진안지사 433-3064 |
| 서신지사 272-9417 | 송전지사 255-2404 | 남원지사 632-0995 | 정읍지사 536-3787 |
| 호치지사 010-6645-9935 | 필북지사 253-6844 | 순창지사 653-0444 | 장수지사 010-3682-6157 |
| | 군산지사 010-8329-6677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4172-3800 |
| | 익산지사 659-9923 | 고창지사 563-6999 |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